

경향신문

정부 자금 '급유'한 항공업계, 주춢했던 구조재편 '속도'

기사입력 2020-04-26 21:19

- 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 곧 재개
- 제주항공도 이스타 인수작업 박차
- 대형항공사 집중된 추가 지원안
- LCC·신생 항공사 여전히 어려움

코로나19 사태로 주춢했던 항공업계의 구조 재편이 정부의 자금 지원 등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 자금 수혈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현산은 이달 말 아시아나항공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인수대금을 납입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연기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수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마이너스통장 형태인 한도 대출로 1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인수작업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산은 등 채권단의 지원 결정으로 정부가 현산에 인수작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같다"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통매각'된 자회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재매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기업 결합 심사 6주 만에 초고속으로 승인했다. 제주항공은 일단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결합 심사까지 완료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1500억~2000억원을 기반으로 잔금 납부 등 남은 인수 절차를 마무리해 이스타항공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직원 350명 내외를 구조조정하는 등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진행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인력 구조조정이 제주항공으로의 인수에 대비한 사전 작업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항공업계 추가 지원 방안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재무 상황이 열악한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LCC 관계자는 "3000억원 지원책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절반도 집행이 안됐다"면서 "고사 직전에 처한

LCC 중 올해 안에 문 닫는 기업이 나오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LCC에 대한 추가 지원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월 발표한 3000억원 내외의 자금 지원은 조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취항하지 않은 신생 항공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신규 취항을 준비 중인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의 집행 시기와 추가 지원 등에 따라 항공업계의 재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32&aid=0003005847>
